

전국순회 닭고기요리강습회 및 솜씨대회 추진상황

각지역 닭고기요리강습회 성황 — 닭고기소비 저변확대에 큰 효과 —

소비자교육은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야

수입쇠고기 소비를 닭고기로 유도하므로써 육류수급을 안정시키고 육류의 국내자급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본회가 회원 및 미사료곡물협회, 미대두협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동물약품협회 그리고 관련업체의 후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닭고기소비 유도 캠페인」의 일환으로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회장:왕준연)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닭고기요리 강습회및 솜씨대회」는 지난 6월에 이어 7월에도 대구, 대전, 광주, 부산에서 성황리에 개최되

었다.

각 강습회는 본회가 발행한, 수입쇠고기와 닭고기의 가격 및 단백질함량비교표와 요리방법이 게재된 8종류의 원색닭고기요리엽서를 교재로 사용하여 주부들이 닭고기의 경제적, 영양적인 이점을 인식시키는데 큰 효과를 얻고 있으며 강습회에 참석한 주부들은 값싸고 영양많은 닭고기로 다양한 별미를 만들 수 있다는것을 새삼 인식하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어 이번 강습회가 닭고기 소비 저변확대에 좋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분석과 함께 이러한 소비자교육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관련 인사들이 의견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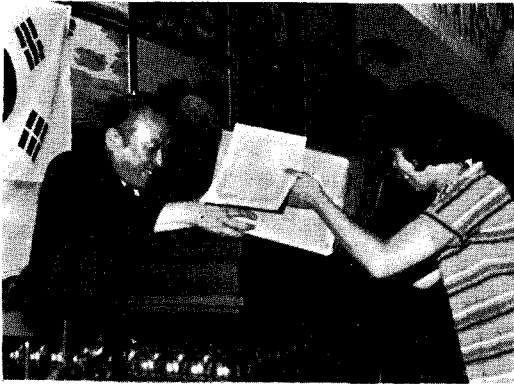
대한양계협회 소식

모우고 있다.

각 지역별 추진상황은 다음과 같다.

알뜰주부들은 닭고기와 계란을

(대구지역)



본회 오세정회장이 솜씨대회에 입상한 주부에게 시상하고 있다(대구)

대구지역은 지난 6월 26일부터 29일까지 명성예식장에서 실시되었다.

강습장소는 주부들로 초만원을 이루어 5회에 걸친 강습회에 2,000명의 주부들이 수강하였으며 닭고기 요리 솜씨대회에는 500명의 주부들이 관람하는 성황을 이루었다.

대구지역 닭고기요리 강습회는 6월25일 대구시 반상회와 KBS방송국“가정시간 공지사항”을 통해서 각 가정에 홍보되었으며 대구시 5개구 주부들이 1개구 단위로 차례로 수강하여 이를 위해 경북 도청 및 대구시 부녀아동과 전 직원이 연일나와 강습회에 참석한 주부들의 편의를 봐주기도 했다.

매회 강습회가 시작되기전 본회 경북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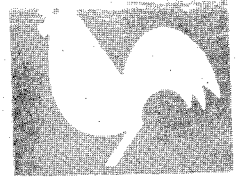
정재덕 지부장 및 대구축산협동조합 김영달 상무가 계란의 유통개선과 구입요령에 대하여 설명하였는데 대구의 경우 시장에서 구입하는 특란가격은 40원인데 비해 축협 공판장을 통해서서는 31원에 구입할 수 있다며 주부들이 단단위로 계란이나 육계의 공동구매를 통해 알뜰작전을 펼치자고 강조하자 많은 주부들이 여러가지 질의를 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어 29일 개최된 솜씨대회는 장마비에도 불구하고 “치킨파이”를 비롯한 40여가지의 요리가 출품되어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솜씨를 자랑했다.

특히 이날 솜씨대회에는 대구 박창규시장 부인 배유절 여사 및 최동원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백정원 여성복지회 회장, 전경화 영남일보이사, 이 현희 대구시 부녀아동과장 경북도청 측정과 신덕용계장과 본회 경북지부 정재덕지부장 및 유종래부지부장, 이상윤 이사 등이 참관하여 출품작에 대한 평가와 의견교환으로 오랫동안에 훈훈한 축제분위기를 이루었다.

심사 결과 최우수상엔 이복순 주부(대구시 서구 비산동6구 518-2)의 폐백닭이, 우수상엔 정희정주부의 닭고기두부구이 찜, 최승숙주부의 치킨파이가, 장려상엔 닭살튀김, 닭고기샐러드, 닭다리튀김, 이외 4명의 주부에겐 알뜰상이 본회 오세정회장과 왕쥘연 회장에 의해 시상됐다.

이날 본회 오세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명한 주부들은 비싼외화를 들여 수입하는 수입쇠고기보다 영양면에서도 우수한 닭고기의 다양한 요리법을 익혀 가계에도 보탬이 되고 가족건강을 돌 볼 수 있는 지혜를 발휘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출품된 작품의 수준이 높아 이를 위해 애쓴 주부들의 솜씨를 치하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출품자 전원에 대하여는 대구시 축산협동조합에서 제공한 육계 1마리와 계란 10개씩이 참가상으로 증정되었다.

지방 계우회의 협조 많아

〈대전지역〉



본회가 발행한 닭고기요리엽서를 교재로 강습회에 열중하는 주부들(대전)

대전지역은 지난 7월 6일과 7일 대전의 충남여성회관에서 개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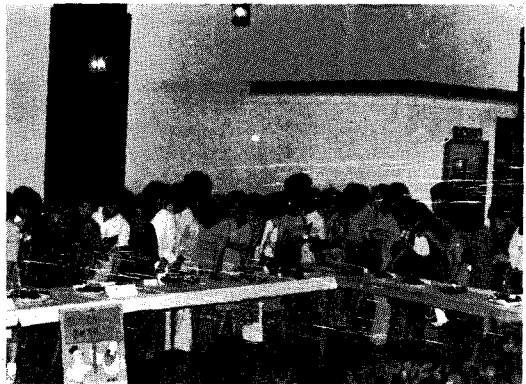
강습회는 6일 오전과 오후 2회에 걸쳐 250여명의 주부가 참석하였으며 7일 닭고기 요리솜씨자랑 대회에는 43명의 주부가 닭간전을 비롯한 각종 닭고기 요리를 출품하고 150여명의 주부가 참관한 가운데 왕 준연회장(한국식생활 개발연구회)을 심사위원장으로 하여 이 현균 충남축정과장, 공용구 회장(대전계우회, 본회 육계분과 위원), 조 민자 여

성회관관장, 윤 호영 충남부녀과장등의 심사위원들이 이를 심사한 결과, 이만희주부(대전시 중구 도마동 205-12)의 폐백닭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우수상에 박 정순, 이 영자 주부가 선정되었다.

이날 콘테스트에 참석한 주부들에게는 대전 계우회에서 제공된 닭고기 1마리씩이 증정되었다.

MBC TV 녹화도

〈광주지역〉



출품 전시된 닭고기요리를 관람하는 주부들(광주)

7월 10일 광주지역 강습회에서는 600여명의 주부가 참석하였다.

특히 이날 강습회가 시작되기전 윤 지혁 전남 식산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최고기 수출국들이 OPEC처럼 카르텔을 형성하여 식량무기화를 꾀하고 있는 이때에 이의 대체식품으로서 닭고기 소비유도를 위한 강습회는 시기적절하다고 말하고 漢方에서 근거없이 닭고기를 금기식품으로 취급하므로서

대한양계협회 소식

일반 소비자가 닭고기에 대하여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음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제는 수입쇠고기 대신 값싸고 영양많은 닭고기를 이용하여 식탁을 꾸려 알뜰주부가 되자고" 강조했다.

11일에 있었던 콘테스트에는 총 46명의 주부가 닭고기요리를 출품하였으며 윤 지혁 식산국장, 박매생축정과장, 이 영애여성회관과장, 장 근화 교육대학 교수, 이 정연 새가정요리연구원장등이 출품작을 심사한 결과 박 형옥주부(광주시 계림 1동 505-1125)가 닭고기 완자튀김집으로 최우수상, 하금옥, 김효정주부가 우수상, 신영자 송영자, 김혜순씨가 장려상에 선정되어 왕 준연회장과 본회 조규성 전남지부장이 시상했는데 특히 광주 MBC-TV에서 진행과정을 녹화, 지방뉴스 시간에 방영하여 많은 광주시민의 관심을 끌었다.

또한 강습회를 계기로 지부회원들이 닭고기소비유도를 추진하기 위한 성금을 거출, 본회에 기탁했다.

또한 본회 전남지부의 조규성지부장, 송두진사장, 문태원 전지부총무가 강습회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각종 매스콤 강습회를 보도

(부산지역)

부산지역 강습회는 지난 7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미화에식장에서 실시되었다.

국제신문과 부산일보 광고를 통하여 홍보된 본 강습회는 3일간 1,000명의 주부들이



출품요리를 심사하는 본회 오세정회장, 박근식 부회장,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왕준영 회장(우로부터)

참석하여 닭고기의 다양한 조리법에 대하여 수강하였으며, 이어서 7월21일에는 그동안 수강한 요리법과 각 가정 고유의 닭고기요리로 출품된 솜씨대회가 열려 삼계탕을 비롯한 많은 요리가 출품되었고 200명의 주부들이 참관하였다. 심사가 시작되기전 닭고기 및 계란의 영양가와 이용가치에 대하여 오봉국 교수(서울농대)의 특별 강연과 본회 오세정회장의 기념사, 권순영 축정과장(경상남도청)의 인사말이 있었다.

본 요리솜씨대회는 왕준연 회장을 심사위원장으로 하여 부산시청 부녀아동과장 권순영 경남도청 축정과장, 본회 박근식부회장, 김종경 부산경남지부장, 황수원 채란분과 위원장등의 심사위원들이 이를 심사한 결과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알뜰상 등을 선정하여 본회 오세정회장과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왕준연 회장에 의해 시상되었다.

특히 부산지역 강습회및 솜씨대회는 경남매



일 신문(7. 21) 부산일보(7. 23)KBS-TV (7. 22) TBS-TV(7. 22) 에서 보도하여 매스콤의 활발한 각광을 받았으며 7월 25일 오전11시에 방송된 KBS라디오 “주부 시간”프로에 본회 오세정회장, 권순영축정과장, 왕준연회장등이 초빙되어 닭고기 요리강습회및 솜씨대회의 취지와 닭고기의 영양가에 대한 대답을 나누었다.

솜씨대회가 끝난후 출품된 작품들은 이날 오후 1시부터 동일장소에서 개최된 하계양계 강습회에 참석한 각분과위원장및 경남부산지역 양계인 유관업체에서 직접 시식하는 시식회를 가져 출품한 주부들과 요리법에 관하여 대답을 나누는 등 훈훈한 축제분위기를 이루었다.

특히 부산지역요리강습회및 솜씨대회는 경남도청 축정과와 본회부산경남지부의 아낌없는 협조로 큰 성과를 이루었다.

1979년도

전국순회 양계강습회 개최

양계산업안정을 위해 하루빨리 계열화 생산체제가 이루어져야

본회가 주최하는 79년도 전국순회 양계강습회가 지난 7월17일 영주 제일교회 교육관에서 그 막을 열었다.

본회가 주최하고 영주군 축협(조합장: 김진영)이 주관한 영주지역 강습회에는 본회 오세정 회장을 비롯 박근식, 오봉국, 박영인 씨가 강의를 맡았는데 약 330여명의 양계인들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강습회가 시작되기전 본회 오세정회

장은 닭고기 소비유도를 위해 많은 성금을 기탁한바있는 김진영 축협조합장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영주지역 양계강습회 광경〉

한편 서울에서는 지난 7월 23일 오후 1시 여성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본회 오세정회장은 오일쇼크와 국내 경기침체, 축산업전반에 걸친 불황으로 양계업계는 큰 시련에 부딪혔으며 또한 업계는 모든 부문에서 급격히 변동될 전환점에 와있다고 전제하고 이 어려운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서 양계인, 협회, 관련업체 그리고 정부는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금년초 극심한 불황 때 정부가 닭고기수매비축을 실시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최초로 당국이 양계산업의 닭고기 비축을 실시했다는데에 큰 뜻이 있다고 평가하고 아울러 현재 협회가 회원및 관련단체와 업계의 후원을 얻어 닭고기 소비유도 캠페인의 일환으로 전국 6개도시에서 20회에 걸쳐 전국순회닭고기요리강습회와 솜씨대회를 실시하여

대한양계협회 소식

닭고기소비저변확대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일찌기 없었던 이와같은 업계의 단결된 협력과 노력은 앞으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커다란 가능성이라고 강조하면서 협회는 양계진흥기금 조성방안에 대하여 검토중임을 밝혔다. 이어서 오봉국교수(서울 농대)는 「양계불황의 원인과 대책」에서 안정된 축산기반을 갖추고 있는 외국에서도 불황이 있기는 마찬가지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경기의 폭과 속도가 크고 급격한 것이 문제이며 현재와 같은 양계산업구조하에서는 이러한 불황을 계속 피할 수 없을 것이며 더욱이 최근의 국제육수수가격의 앙등등 양계여건이 악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양계진흥법을 제정하여 양계조항을 육성하여 외국의 Egg Board나 broiler council 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이의 운영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여름철 더위에 의한 닭의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료 1000kg에 아스피린 45g을 투여했을 경우 폐사가 감소하고 산란율 저하가 완화되었으며 산란계의 발톱을 잘라주면 운순해지고 산란율이 증가했다는 해외 연구보고를 소개했다.

이어서 미대두협회 가축영양담당상무인 세라씨가 「일본의 브로일러 생산, 유통, 판매, 소비현황」에 대한 슬라이드 상영과 함께 설명이 있었다.

또한 박영인지부장(미사료곡물협회)은 「브로일러산업 안정과 계열화 생산」이라는 제목하에 양계과동을 격지않기 위해서는 일부문만의 구조 개편으로는 실효를 거둘수 없으며 생산, 유통, 판매가 일관화되는 계열화생산

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다.

박근식과장(가축위생연구소)은 「닭질병방제에 대한 제문제점과 대책」에서 최근 질병 발생상태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최근의 자료를 인용, 뉴캐슬 면역효과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가축위생연구소에 검색을 의뢰할 때는 투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출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난 7월21일 미화에식장에서 개최된 부산지역강습회에서 본회 오세정 회장은 부산지역의 양계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은 권순영 경상남도 축정과장에 감사패를 수여하였으며 닭고기소비유도캠페인을 위해 많은 성금을 기탁한 김중경지부장과 24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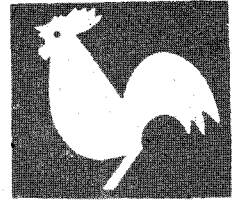
본 강습회는 7월 24일 전주, 25일 광주, 26일 홍성, 27일 안성, 8월 4일 제주에서도 각각 개최되었다.

NRA 극동지사장 본회 방문

NRA(National Renderers Association) 극동지사장 J David Anderson씨가 지난 7월 6일 본회를 방문 오세정 회장과 업계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교환이 있었다.

NRA는 본회, 사료협회, KIST, 대학등과 협조하에 사료에 우지첨가 사양시험을 실시하여왔고 본지 발간에도 협조 하여 왔었다.

Anderson지사장은 앞으로 월간양계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 하겠으며 미국 NRA를 통하여 새로운 양계산업 정보를 제공하여 줄것 도 약속하였다.



Anderson지사장은 우리나라 현 관세중 사료용 우지에 대해서만 3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역설하고 동물성 우지의 사료적가치와 경제성에 대하여 오세정 회장과 의견교환이 있었다



J. David Anderson

닭고기요리 홍보활발

— TV 및 일간신문을 통해 —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 10분 KBS TV 「주부광장」프로그램에 왕 준연회장(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의 「닭고기 칼국수」요리강좌가 방영되었으며 또한 왕준연회장의 닭고기요리가 최근 일간지에 계속적으로 다음과 같이 게재되고 있어 닭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을 높임과 아울러 소비절약시대의 식품으로서의 영양많고 값싼 닭고기를 재인식시켜

소비증대를 촉진하는데 큰 효과를 나타 내고 있다.

영주분회 결성총회 개최

지난 7월 17일 영주제일교회에서 하계강습회가 끝난후 약 100만수의 사육 규모로 급격히 발전한 영주, 봉화, 예천, 단양, 제천, 철암, 장성, 황지지역의 양계인들은 본 협회의 분회를 결성하므로서 이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고 새로운 정보를 신속히 습득 교환하고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여 불황을 타개하는 힘을 모우자는데 합의하는 대한양계협회 영주분회(가칭) 결성 총회를 개최했는데 동 결성총회의 발기인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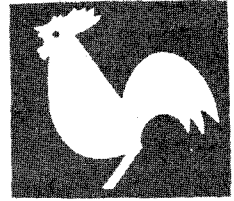
이춘직(영주), 이진섭(봉화), 손병원(풍기), 이홍선(봉화), 문덕조(풍기), 전시석(영주), 장성호(영주), 유종하(영주), 김진영(영주), (이상무순)

양계산물에 대한 홍보상황

① 일간신문

월 일	게재신문명	내 용
6. 7	동 아 일 보	영계백숙, 삼계탕
6. 20	새마을부녀회보	닭호박 새우젓찌개
6. 21	매일경제신문	닭 불고기
"	신 아 일 보	삼계탕, 닭밀국수
"	전 북 신 문	닭 불고기
"	전 남 매 일 신 문	닭 불고기
"	전 남 일 보	삼계탕
6. 22	제 주 신 문	닭 불고기
"	경 기 신 문	영계백숙
7. 4	서 울 신 문	닭밀국수, 닭모래집조림
7. 11	신 아 일 보	닭 불고기
7. 21	경 남 매 일 신 문	닭고기요리강습회 및 콘테스트
7. 22	부 산 일 보	"

대한양계협회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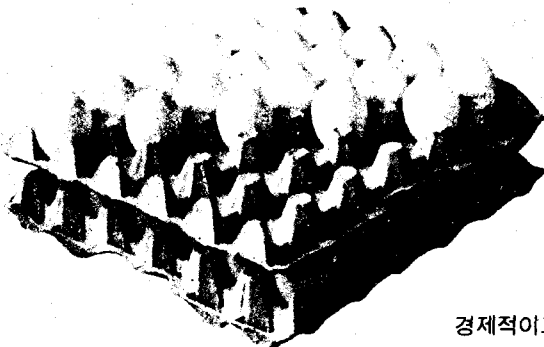


② TV 및 라디오

월 일	방 송 국	프 로 그 램	내 용	비 고
6월 12일	C B S	오늘의 경제	닭고기 소비에 대하여	라 디 오
6월 15일	전주 MBC	이동취재	닭고기요리콘테스트	"
6월 16일	K B S	주부광장	닭고기요리강좌	T V
6월 26일	대구 CBS	주부정보	닭고기요리강습회 공지	라 디 오
7월 2일	T B C	안녕하십니까 맹경순입니다.	성인병예방에 닭고기는 이상적	"
7월 7일	청주 KBS	토요일 오후에	닭고기 요리강좌	T V
7월 11일	광주 MBC	수 시	닭고기요리콘테스트 공지	라 디 오
7월 14일	서울 KBS	주부광장	닭고기 요리강좌	T V
7월 18일	광주 MBC	MBC News	닭고기요리 콘테스트	T V
7월 22일	부산 KBS·TBC		닭고기요리강습회 및 콘테스트	T V

종계장·부화장의 방역은

종이난좌에 맡겨 주십시오!!



종이난좌를 사용하시면

- 무서운 질병의 전파를 막습니다.
- 파란이 전혀 없습니다.

경제적이고 위생적인
종이난좌로 방역관리는 안심!

한국성형제지공업사

경기도 성남시 고등동 98-1 (전화) 고등우체국77번